

## 社會淨化運動의 理念과 方向 (제 2 회)

大韓齒科醫師協會 淨化推進委員會

### 一 連載 目次 一

- 제 1 회 : 제 1 장 社會淨化運動의 意義
  - 1. 社會淨化運動의 當爲性
  - 2. 社會淨化運動의 背景
- 제 2 회 : 3. 社會淨化運動의 民族史的 脈絡
- 제 3 회 : 제 2 장 社會淨化運動의 理念
  - 1. 正 直
  - 2. 秩 序
- 제 4 회 : 3. 創 造
  - 제 3 장 社會淨化運動의 目標와 方法
    - 1. 推進目標
- 제 5 회 : 2. 接近方法
- 제 6 회 : 제 4 장 社會淨化教育의 方向
  - 1. 家庭教育
- 제 7 회 : 2. 學校教育
  - 3. 職場教育
  - 4. 社會教育
- 제 8 회 : 제 5 장 社會改革運動의 歷史的 考察
  - 1. 鄉約運動
  - 2. 日帝下의 民族更生運動
  - 3. 50年代의 農村發展運動
  - 4. 60年代의 社會改革運動
  - 5. 새마을運動
- 제 9 회 : 제 6 장 外國의 社會改革運動
  - 1. 덴마크
  - 2. 中華民國
  - 3. 싱가포르
- 제 10 회 : 4. 이스라엘
- 제 11 회 : 제 7 장 結 論

### 3. 社會淨化運動의 民族史的 脈絡

社會淨化運動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적인 노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운동이 民族史의 큰 흐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사적 흐름 속에

서 이 운동의 當爲性과 推進方向을 모색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의 모든 것은 다 소간 어제와 연관성을 갖는 것이며 어제를 잘 알지 못하고 내일을 옳게 方向잡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社會運動이 있기까지의 우리 민족의 精神史의인 脈絡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부분적으로 오도된 정신풍토의 원인을 고찰함은 물론 民族精神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傳統의 價値觀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 民族性 속에서 긍정적 가치를 발굴, 권장하고 부정적인 것을 배제하면서 시대의 새로운 요청을 고려하여 民族精氣를 재창조하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에 의하면 단군 왕검의 가르침에 따라 온 누리의 온 백성이 '弘益人間'의 거룩한 理念에 입각해서 곧고 바르며, 밝고 큰 光明正大한 포부를 가지고 민족적 친화단결을 도모하는 가운데서 民族史의 創始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민족기질의 본질은 叡智와 寬容과 웅건의 기상이 완연하여 바르게 살고, 어울려 살며, 이루고 산다는 運命共同體로서의 단일민족 의식이 온백성에게 뿌리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고대국가마다 제나름의 특색이 있어 고조선은 너그러움으로, 고구려는 씩씩함으로, 그리고 백제는 우아함으로 그 精神이 나타났고 三國을 통일한 신라에 이르러서는 배어남이 文化의 특색으로 아로새겨진 것이었다.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국가간의 충돌이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족통일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통일후 신라의 유희정책과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의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함으로써 民族의 結속이 統一新羅의 배어난 文化形成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후로는 內的인 문화의 융성도 있었지만 북방민족과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힘이 소모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인들은 外來文化를 주체적으로 受容하면서 철저한 호국불

교로서 종교적 自己國籍을 뚜렷이 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화적 주체성은 거듭된 외세침입의 시련속에서 더욱 굳건해졌다. 그러한 노력이 八萬大經綫의 通行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란의 침입과 여진족의 성장 그리고 세계제국으로 뻗어나간 몽고족의 국권탈취와 고려말 왜구 및 홍건적의 노략질 등 실재없이 고려국의 안정을 위협받았다. 수·당의 대군을 물리친 고려의 기상이나 삼국통일후 당나라 군대를 몰아낸 신라인의 自主精神 그리고 거란의 수차에 걸친 침입을 단호히 격퇴한 고려 초기의 강력한 방위력이 몽고제국과의 40년간에 걸친 끈질긴 항쟁 속에서 지탱할 힘을 잃고 말았다. 고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외세의 침입에 대해 國民意識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방어의식으로 승화되어 투철한 自主精神을 발휘하였으나 고려 중기이후 대외투쟁의 결과는 주로 事大外交 수단을 통해 마무리를 지어나감으로써 國民精神은 점차 대외의존적인 自己安全 추구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삼별초의 줄기찬 抵抗運動이 종식된 이후의 고려에 대한 몽고의 지배는 원나라 文化 일부를 강압적으로 이식시킴으로써 고려의 傳統文化에 급격한 혼란을 야기시켰다.

몽고의 몰락이 東아시아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땅에서는 명나라가 일어나고 고려내에서도 親明·親元세력이 양분되어 오던 중, 親明事大的인 朝鮮王朝의 등장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거부장적인 三綱五倫의 이념이 우리 민족의 의식속에 철저히 뿌리내리게 되었다. 儒敎의 근본정신은 民本的 德治主義에 입각한 ‘仁’의 실현인 바 세종·성종기에는 그 근본적 정신이 왕성히 실현되어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였으나 연산군이후의 폭정과 사화, 당쟁을 통한 分派意識의 조장으로 계층적 위계질서가 더욱 엄격해지고, 형식주의적인 명분론에 치우치게됨으로써 儒敎의 근본이념이 변질되어 身分間, 男女間, 長幼間에 걸어서는 철저한 禮式을 따르면서 內面的으로는 점차 違和感을 형성시켜 나갔다.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의 대전을 겪게 되면서 민심은 중앙의 집권층과 이반되고 불신풍조가 늘어났으며, 스스로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立身出世主義와 도피성향이 만연하였고, 관권은 국민교화와 국력증강에 이바지하기보다 가렴주구(荷歛誅求)의 학정을 일삼아 민심을 도탄에 빠뜨리는 愚를 범하기 일췌였다. 요컨대 儒敎의 精神文化는 仁·義·禮·智·信이라는 고상한 덕목을 그 본질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천방법에 있어서 비합리적 권위주의로 경직화하여 정세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범국민적인 의지로 규합되고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民族精神의 저류에는 항상 우리 민족정신의 근본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지속 되어왔으며, 그러한 노력들이 때때로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우리 민족은 유사이래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단일민족으로서의 친화성을 바탕으로 破邪顯正의 결백한 정신을 숭상하여 왔으며 그러한 정신이 花郎思想, 선비사상, 選民思想으로 나타나 자연의 大道와 조화되는 어울림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점은 爲民思想에 입각한 민주적인 바탕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또한 유교문화의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진보적 價値觀이 民族精神의 저류를 형성하고 그것이 東道西器思想, 실학사상, 동학사상, 독립사상 등 민족주의적인 성찰로 나타났으며 外來文化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재창조하는 독특한 기질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

울곡, 퇴계 등 석학들의 학문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5백년동안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 허약해진 조선의 儒敎理念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임진·병자양란후 새롭게 대두된 實學思想 등 신진사조들을 강압적으로 규제하여 조선사회는 문화적 탄력성을 상실한 채 정신적 刷新아닌 퇴락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심화되는 관권의 부정부패와 민심의 攪亂 등 내적인 혼돈과 주체성 상실로 조선은 일제에 강점되는 비운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일제는 조선을 植民地化하고 35년간 우리의 民族文化를 철저히 말살시키기 위해 국사를 임의로 개편 왜곡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內鮮一體, 皇國臣民 등 우리 민족에게 속국 의식을 주입시키는데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傳統的 價値觀 등 출중하고 빼어난 부분을 마멸 또는 극도로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과장함으로써 소위 식민사관을 이식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한 일제의 조선침략은 조선관리들의 일부를 동원하여 통치에 참여시킴으로써 조선말 변질된 儒敎道義에 의해 각박해진 精神風土를 그대로 허용하였으며 그 위예다가 일제의 목적에 맞도록 세뇌교육을 시킴으로써 당시의 정신문화풍토는 설상 가상으로 피폐화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民族精神의 손상은

3. 1운동 등 될새없는 民族主義 運動이나 自主獨立 運動에도 불구하고 실로 치명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비록 외세에 의해서나마 해방을 맞이하였고 국권회복을 계기로 새로운 다짐들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종식과 더불어 전승국들은 우리나라를 그들의 전리품인양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民主主義와 共產主義라는 극단적인 두 이데올로기를 이식시켜 놓았다. 그 결과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나타났으며, 민족의 인명과 재산과 정신에 더없이 엄청난 타격을 가한 후 준전시 상황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한편 해방후의 그러한 혼란속에서 민족정통성의 회복과 주체성의 확립도 없이 지난날의 植民精神風土 그리고 잡다한 外來思潮가 뒤엉켜서 精神的 混亂이 가중되었다. 이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체성이나 가치관의 정립이라는 時代的 要求가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러나 유교적 관습이나 일제의 잔재를 탈피하지 못한 위정자들의 統治方式과 아직 그러한 관습이 舊習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國民 意識은 우리의 전통적인 美德이나 훌륭한 가치관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한 채 35년이 경과하고 말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거니와 우리의 民族正氣는 세계의 유수한 민족들에 비하여 뛰어나다고 본다. 주변의 強大國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독특한 民族文化와 半萬年의 歷史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적 줄기는 무엇인가? 본래 청명하고 온화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온 옛 韓國人의 기질은 正直하고 명량하며 용감하고 관대했으며 예절과 정의감이 뚜렷한 가운데 정서적이면서 화합을 이루는 미풍을 간직해 왔다. 그 증거로서 중국의 山海經에서는 당시의 우리 社會를 “예절이 바른 나라(君子國)”라고 하였고 우리 겨레의 성품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싸우지 않는다(好讓不爭)”고 칭송하였다. 또 東方朔神異經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헐뜯지 않으며 우환을 당한 사람을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구한다.(相譽而不相毀見人有患投死救之)”고 경의를 표했으며 後漢書에서는 “사람의 성질이 곧고 강하며 용기 있다(人性質直強勇)”고 하여 부러운 눈조로 예찬했다.

한 民族의 生成, 發展의 근본은 그 民族理念이 민족구성원 전체를 包容하는데서 출발한다. 널리 인

間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가치, 제도, 규범들은 우리민족의 정신에서 단연코 배척되는 것이었다. 또한 “널리 人間을 이롭게 한다” 함은 타인에 대한 가해적인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므로 침략적 행위나 수탈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서로 화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平和를 유지·존속시키자는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歷史가 지향해온 共同體的 信念속에는 ‘韓’의 정신이 있다. ‘韓’은 光明正大에 대한 민족적 信仰의 표시이며 正義실현을 위한 올바른 良心의 선언이다. ‘韓’은 ‘一’과도 통하는 것으로 이는 人本的 平等思想을 의미하며, 개인과 전체와의 合一思想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佛敎의 “사람은 곧 하늘(人即天)”, 儒敎의 “백성의 마음은 하늘의 뜻(民心即天心)”, 그리고 東學의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사상으로 이어져 오늘날 대한민국의 ‘韓民’으로 이어지는 歷史的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

유교에 있어서는 지배층에 대해 ‘仁政과 德治’를 요구하고, 平民에 대해서는 ‘충성’을 요구했으며, 윗사람에 대해서 ‘慈愛’를 요구하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孝行’을 요구하며 각자의 역할에 따르는 倫理的 責任을 부과함으로써 조화로운 규범질서를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적 인간상으로 부각된 것이 “花郎精神”과 선비정신”이다. 이들 두 정신은 그 發生의 時代的 연원은 달리하지만 우리 民族固有의 정신을 이어받은 참된 인간상으로서 부단한 자기수양을 통해 스스로의 倫理的 責任을 다하고 언제든 국가와 민족의 부름에 응함으로써 個人과 全體를 조화롭고 유익하게 하는 韓民精神의 요체인 것이다.

신라에서 출발한 花郎精神은 忠, 孝, 信, 勇, 寬의 다섯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싸움터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 과감성이 강조되는 한편 풍부한 人間性을 토대로 하여 信義와 寬容 등의 슬기가 더불어 강조된 힘과 슬기를 겸비한 조화된 歷史意識이 뚜렷하고 사리의 분별이 명확하며 행위의 진퇴가 뚜렷한 이상적 人間像을 말한다. 물론 화랑이나 선비는 당시의 시대적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폐쇄적 신분제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기 어려웠으나 民主主義를 실천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그 精神을 이어받을 수 있음으로 이상적 人間像으로 부각시키는데 뜻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花郎精神은 미성년의 귀감으

로서, 선비정신은 성년의 모범으로서 教育的 價値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덕 중에서 ‘和’의 精神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것은 ‘함께 어울림’의 정신이다. 우리 민족은 결코 무력적인 침략을 통해 다른 민족의 파멸을 초래시킨 일이 없는 平和民으로서 ‘和’의 민족이며, 자연에 동화되고 자연과 함께 조화되는 ‘和’의 민족이다. 이러한 精神은 大乘的인 민중지향의 人本主義를 골자로 하며 원효의 和靜思想에서 이미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되었고, 신라의 和尪制度를 통해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적인 화합의 초석을 다져 놓은지 오래다. 그러한 정신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家和’의 가정윤리로도 중시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弘益人間’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족으로서 ‘韓’의 정신을, 그 실천적 주체인으로서의 모범적 표상으로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을, 그리고 공동체적 결속가치로서 ‘和’의 정신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신 등은 분명 태초로부터 우리 民族의 기질을 형성하는 미덕이었으며 온 겨레의 잠재의식 속에 누적되어온 살아있는 價値들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民族正氣가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모되어 갔으며, 오늘날의 國民意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우리 민족은 유사 이래 수많은 外勢侵入을 물리치는 굳건한 호국정신을 발휘해 왔으나 부지불식간에 주변 강대국에 대해 事大主義的인 성향을 심어 놓았다. 사실상 우리의 歷史는 국난극복사가 중요한 부분을 이루기도 한다. 半島國이라는 地政學的 특수성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이 국제팽창의 야심을 품을 경우 종종 전화에 휘말리는 곤란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先人들은 報國安民의 출중한 기상과 國民의 합심단결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단호히 격퇴하면서 주변국에 대해서는 文化移植을 통해 공존의 미덕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같은 對外抗爭史가 항상 우리나라의 승리로 매듭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고려 때의 몽고제국의 침략과 임진왜란 그리고 근세 일제의 한반도 통치는 우리의 文化와 國民의식 속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다. 몽고의 침략에 대해서는 民族의 佛力更生을 도모하였고, 삼별초가 殺身成仁의

호국정신을 발휘하였으며, 임진왜란 때는 충무공의 위대한 영도력과 국민들의 의병정신으로 끝내 왜군을 격퇴하였고, 일제 침략시에는 동학정신과 의병정신이 독립투쟁정신으로 연결되어 광복의 순간까지 연이어 발휘되었지만 外勢가 국토를 노략질하는 동안 대다수 국민에게 끼친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대단한 것이었다. 외세의 침범에 의한 國難들을 극복해 가는 동안 끈질긴 民族意識이 고양되어 우리 民族精神史의 큰 원동력을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끊임없는 生存에의 위협과 眞·善·美·德·義 등 모든 숭고한 가치들이 극한적인 限界狀況들과 맞부딪히면서 우리의 文化的 遺産은 많은 손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은 동요되고 矜持와 安定을 잃고 자기자신의 안전만을 제 1의 가치로 여기게 되고 도피주의와 패배주의의 性向을 우리의 精神風土에 남겼던 것이다.

또한 고려때 거란의 침입에서부터 우리의 安全保障을 위한 대외관계는 국방력의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주로 대륙국가에 대해 事大主義 外交를 펼침으로써 현상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위 事大主義로 표현되는 대외의존적 價値觀이 자체역량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때, 오늘날의 경제적 대외의존 또한 한 국가의 운명을 종속적인 입장에다 두는 결과이므로 自主國防과 自立經濟의 달성없이는 事大主義的인 성향에서 탈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 민족에게 가해졌던 외세의 軍事的 침략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經濟的 침투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 오늘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軍事的, 經濟的 압력을 동시에 받게됨으로써 더욱 큰 긴장감의 형성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朝鮮時代 유교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權威主義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意識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전통적이며 비합리적 권위주의는 현대 산업사회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적 일체감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조선시대의 儒敎文化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한 비합리적 권위주의는 연령, 성별, 세대, 관직 등의 형식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國民의 의식 속에 疇昔의 親和關係보다 중적인 上下關係를

심화시켜 사회적 탄력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말았다.

儒敎의 근본적 性格은 君臣, 父子, 夫婦, 長幼, 朋友 간에 합당한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君君臣臣, 父父子子의 의미처럼 각자의 위치에 맞는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社會秩序를 유지하는 合理性을 지니고 있었다. 뒷사람은 뒷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음으로 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그러한 儒敎秩序가 상층윤리의 교란으로 인하여 仁政이 오도될 경우 虐政이 되고 德治가 잘못되면 惡治가 되었으며 慈愛가 強權으로 전도됨으로써 하층윤리도 인내의 한계에 이르고 경직화되어 맹목적 충성과 굴종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모순을 빚게 되었다. 또한 上智와 下愚의 구분은 관준민비상상을 배태시키고 감투지향 의식을 심화시켰으며, 마침내 착취적인 권위주의로 전락하여 官과 民衆 간에 일체감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민중의 官과 國家權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오늘날 公務員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확연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고 公職을 마치 권좌처럼 의식하게 되는 까닭도 그와같은 폐습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民意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제반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맹목적인 충성과 의무만을 강요하여 국민을 국가에 종속시킨다면 비합리적 權威主義는 뿌리뽑힐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非合理的 權威主義에 오염된 社會風土 속에서는 연령, 성별, 세대, 관직 등의 형식적 인간관계가 중시되어 능력 발휘의 기회가 봉쇄됨으로써 과잉충성과 아첨등의 비합리적 행위가 범람하게 되고 거기서 모략과 암투 등의 부조리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個個의 성원은 자신의 역할을 중지하여 目的指向의 意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地立指向 意識에 치우쳐 보나 높은 감투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비합리적 권위주의는 合理性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로 부터의 合理的인 要求나 건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급자의 義務만을 강요함으로써 인간관계가 상호 유기적인 역할관계보다도 일방적인 지배·복종관계가 되어 사회는 발전보다도 정체상황에 머물게 된 것이다.

세째, 유교적 영향이 사회적 인간관계에 있어서 家族中心主義의인 폐습을 지속시켜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市民意識 形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 朝鮮朝 이래로 확산·정착된 儒敎道德은 우리 사회를 家父長的인 規範秩序로 얽매어 놓았다. 군신 관계에 있어서나 부자 관계에 있어서도 아랫사람은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였고 특히 孝를 선행의 근본으로 삼아 孝가 국가적 차원에서 발휘될 때 忠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녀자의 지위는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현모양처의 조건처럼 간주되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강력한 家族中心主義는 長幼有序 男尊女卑 등에 힘입어, 질서유지에는 기여하였으나 社會的 活力을 억눌러 사회는 정체성을 면치 못했다.

손아랫 사람은 손윗 사람의 말에 거의 맹목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보편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가치의 정립이 어려웠고, 또한 가정이나 사회집단내에서의 철저한 序列意識은 민주주의의 발달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家族中心主義는 個人들로 하여금 家族를 가장 중요시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민단합도 결여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강력한 家族倫理로 까지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公益보다 私益을 우선하는 풍토를 야기시켰으며 私益을 보호하려는 문벌 또는 족벌 간에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세력에 대하여 배타적인 성향을 강하게 띄게 하였다. 지난날 일부 政黨들의 당파싸움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전체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法的 統制力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집단 세력의 상대적인 이익을 보장하는데 급급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遵法精神이나 公衆道德준수가 문제시되는 결과로 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産業化, 都市化, 核家族化로 변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질서가 붕괴되어 감으로써 지나친 家族中心主義에서 오는 폐단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民主市民倫理가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오늘날 바람직한 市民教育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개인들이 個人으로서 확고한 국가관에 입각하여 公的 秩序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教育이 잘못 이루어지거나 미온적으로 이루어질 때 産業化, 都市化 과정에서 개인은 合理的 民主市民이 아닌 利己의 個人으로 전락되기 쉽다.

여기에 바로 네 번째의 國民精神 오도 요인이 있다. 즉 물질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천박한 現

實主義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암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을 기본적 산업으로 알아본 우리의 경제관이 近代化 과정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하였으며 그 결과 2차산업과 3차산업이 농업을 압도하는 産業構造로 개편되었다. 국가정책의 중점을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둠으로써 經濟第一主義 또는 물질만능주의 사조가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는 자연히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급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인 양 되어버렸고 그에 따른 手段과 方法 등은 결과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풍토를 낳았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한 보수로서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비합법적인 手段을 통해서라도 충족시키려고 하였다. 그러한 풍토자체가 점차 돈에 위력을 부여하였고 돈의 위력이 또 그런 풍토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자연히 不正과 腐敗와 不條理가 짝트지 않을 수 없었다. 生産과 建設이 중시되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國民總生産은 강조되면서, 國民總滿足과 國民總福祉가 그와 동등하게 고려되지 않을 때, 貧富의 격차는 심해지고 社會的 不滿은 고조되는 것이다. 점차 일부 기업인은 경제적인 마키아벨리주의자가 되고 일부 근로자는 사회적 레지스탕스가 되어 결과적으로 社會的 道義는 점차 퇴색되어 갈 뿐이며, 또 어떤 사람은 있다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처럼 흉내내느라고 허례허식에 빠져들기 일쑤인 것이다. 따라서 國民의 精神文化를 經濟發展만큼 중요하지 않거나 분배적 측면을 생산적 측면만큼 중요시하지 않을 때,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 부패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의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歷史的 經驗을 통해 살펴본 이같은 몇가지 精神風土를 오도시킨 원인들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諸問題의 연원을 쫓아볼 수 있다. 秩序가 붕괴되고 富와 權勢라는 허상의 추구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改革이나 創造는 뒷전에 밀어두고 성과를 잘 헤쳐 나가면 그만이라는 그릇되고 타락한 社會風潮가 범람하게 된 것은 위에서 지적된 原因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스스로 이를 고치고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社會의 病理現象의 근원이 쓰라렸던 歷史的 經驗으로부터 형성된 것이 라해도 장구한 우리 民族史의 줄기찬 저력과 비교할 때, 그것은 결코 치유할 수 없는 고질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몸에 배어버린 한갓 나쁜 습관에 불과하다. 잘못 몸에 배인 습관을 고치는 길이란 경험을 거울삼아 그로부터 教訓을 얻어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마음깊이 反省하고 굳은 意志와 각오로 스스로 나쁜 버릇의 재발을 경계하며 다시금 새롭고 훌륭한 버릇을 몸에 익혀가는 끊임없는 노력 외에는 없다.

이제는 결단의 때이다. 폐습을 알면서 고치지 않고 連帶性을 잃어버린채 흡사 모래더미와도 같이 무수한 個人들만의 아귀다툼의 수라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社會的 連帶를 회복하며 믿음과 秩序를 되찾아 ‘나’ 아닌 ‘우리’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社會, 그리하여 진실로 힘찬 應戰力을 지니고 국가와 민족의 運命의 進路를 개척해 나갈으로써 새로운 歷史를 創造해야 할 때인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결단과 굳은 각오이다. 지난 경험으로부터 教訓을 찾아 내어 그것을 앞날을 위한 設計에 보탬이 되게하는 노력과 함께 앞날을 主體的으로 이끌어갈 강건한 意志가 필요한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은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 왜곡되고 그늘에 가려버린 우리의 傳統的 價値를 재조명하여 참다운 우리의 얼을 되찾아 그를 바탕으로 오늘에 합당한 규범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歷史의 章을 열고자 하는 國民精神革命運動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안목에서 우리사회가 처한 제문제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지난 역사적 경험을 평가해 봄으로써 사회정화운동의 당위적 요청을 歷史的·時代的 줄기에서 찾아 보았다.

우리가 앞에서 국민정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한 것은 발전을 위한 반성의 계기로 삼자는데 그 뜻이 있다. 사실상 우리 國民性이 위태함은 지난날의 祖國近代化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社會淨化運動은 近代化 다음에 오는 祖國現代化를 위한 民族運動이며 우리 民族은 확실히 이 운동을 성공시킬 底力이 있다고 확신한다.

## 아시아 태평양에 드높힌 새시대의 자주외교